

고1
천재박

2(2) 자신의 관점에서 문학 작품 읽기(허생전)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 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다 빈출유형 1

허생은 도적 떼들을 데리고 '빈 섬'에 들어가 이상향을 건설하게 됩니다. '빈 섬'이 어떤 공간인지 그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니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편 만 금을 빌린 허생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바로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며 거처를 마련하였다. 안성 지방이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이고, 삼남 지방의 길목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의 과일들을 모두 시세의 곱절 가격으로 모조리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사재기하는 바람에 나라 안에서는 연회를 열거나 제사를 지낼 수 없었다. 얼마 지나자 허생에게 곱절의 가격으로 팔았던 장사치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가격으로 되사 가게 되었다. 허생이 한숨을 쉬며 탄식하였다.

“겨우 만 금으로 한 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허생은 다시 칼, 호미, 베, 명주, 솜을 사 가지고 제주도로 들어가서 그곳의 말총을 다 거두어 들였다.

“몇 해가 지나면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과연 얼마 있다가 망건값이 열 배로 치솟았다.

허생이 늙은 뱃사공을 찾아서 물었다.

“바다 밖에 사람이 살 만한 빈 섬이 있던가?”

“있습지요. 언젠가 태풍에 표류하여 곧장 서쪽으로 사흘을 가서 한밤중에 어떤 빈 섬에 닿았습니다. 따져 보니까 중국의 사문과 일본의 장기도의 중간쯤 될 겁니다. 꽃나무가 절로 피며, 과일이 절로 익어 있고, 사슴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물고기는 사람을 봐도 놀라질 않았습지요.”

허생이 크게 기뻐하며,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준다면 부귀를 함께 누리게 해 줘세.”

하니 사공이 그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 방향으로 가서 섬에 들어가게 되었다. 허생은 섬의 높은 곳에 올라서 사방을 둘러보고는 그만 실망하여 탄식하였다.

“땅이 고작 천 리가 못 되니,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땅은 기름지고 샘물은 달콤하여 그저 돈 많은 늙은이는 될 수 있겠구먼.”

그러자 사공이 물었다.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곤 없는데 도대체 누구와 함께 살아간다는 말이지요?”

“덕(德)만 있다면 사람이란 절로 모이게 마련이네. 덕이 없을까 걱정해야지, 어찌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겠는가?”

그때 전라도 변산반도에는 도적 떼 수천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 지방의 고을과 군에서 군졸을 풀어서 체포하려고 했으나 잡을 수가 없었다. 도적 떼도 감히 나돌아 다니며 노략질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바야흐로 굶주림에 허덕였다. 허생이 도적의 소굴로 들어가서 괴수를 달랐다.

“천 명이 천 금을 털어서 나누면 한 사람 앞으로 얼마의 돈이 돌아가는가?”

“한 사람에 한냥씩 돌아가지요.”

“자네들에게 아내가 있는가?”

“없습니다.”

“가진 발뺨기라도 있는가?”

도적들이 코웃음을 쳤다.

“아니, 발 있고 아내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적이 된단 말이지요?”

“자네들이 그렇게 잘 안다면 어째서 장가를 들어 살림을 장만하고, 소를 사서 밭을 갈 생각은 하지 않는 겐가? 그리되면 살아서 도적놈이란 이름도 없을 것이고, 집에 살면서 부부의 즐거움도 있을 것이며, 나돌아 다녀도 관에 붙잡힐 염려가 없을 것이고, 길이길이 의식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어찌 그런 생활을 원하지 않겠소이까? 다만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을 뿐입죠.”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들이 명색 도적질을 하는 도둑놈이런만 어찌 돈 없다는 걱정을 다 하누? 내가 자네들을 위해 돈을 마련해 줄 것이네. 내일 바닷가를 바라보게나. 바람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 배가 모두 돈을 실은 배일 터이니, 어디 자네들 마음껏 한번 가져가 보게.”

다음 날이 되어 바닷가에 허생이 돈 삼십만 냥을 싣고 나타나자, 모두 크게 놀라 허생에게 줄을 지어 절을 하였다.

허생이 도적들과 약조를 하고 떠나자, 도적들이 모두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다음 날이 되어 바닷가에 허생이 돈 삼십만 냥을 싣고 나타나자, 모두 크게 놀라 허생에게 줄을 지어 절을 하였다.

“오직 장군의 명령대로 따르겠소이다.”

“있는 힘대로 지고 가게나.”

그리하여 도적들이 돈을 짊어졌으나, 사람마다 고작 백 금을 넘지 못했다. 허생이

“너희들 힘이란 게 고작 백 금을 들기에도 부족하거늘, 어찌 도적질이라도 변변히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너희들은 비록 평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이미 도적의 명부에 올라 있으니 어디 갈 곳도 없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터이니, 각자 백 금씩 가지고 가서 아내 한 사람과 소 한 마리씩 장만해 오너라.”

하자, 군도들이 모두 좋다고 승낙하며 흩어졌다.

그동안 허생은 이천 명이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장만하여 그들을 기다렸다. 도적들이 기한한 날짜에 모두 도착해 뒤에 처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드디어 모두 배에 싣고, 빈 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도적을 모두 쏘어 가자 나라 안에는 도적 걱정이 없어졌다.

한편 섬으로 들어간 허생과 도적들은 나무를 찍어서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었다. 땅기운이 온전하다 보니 온갖 곡식이 심는 대로 크고 무성하게 자라고, 김을 매고 쟁기질을 하지 않아도 한 줄기에 아홉 이삭이 달렸다.

삼 년 먹을 식량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로 가서 팔았다. 장기는 일본에 속한 고을로, 삼십일만 호가 되는 큰 지방인데 바야흐로 큰 기근이 들어 있었다. 그리하여 굶주린 사람들을 진휼하고 은 백만 냥을 얻게 되었다.

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야 나의 자그마한 시험을 마치게 되었구나.”

하고는 남녀 이천 명을 모두 모아 놓고 명을 내렸다.

“내가 처음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의 계획으로는 먼저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 제도를 새로이 제정하려고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 땅이 좁고 내덕이 얇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려나. 아이들이 태어나 손가락을 잡게 되면 오른손으로 잡도록 가르치고, 하루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하게 하라.”

그러고는 다른 배를 모두 불살라 버리고,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테지.”

하고 은자 오십만 냥을 바닷속에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얻는 사람이 생기겠지. 백만 냥이나 되는 돈은 나라 안에서도 놓아둘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 작은 섬에서야.”

했다. 글을 아는 사람은 모두 배에 실어서 함께 섬을 빠져나오며,

“이 섬에 화근을 없애려 함이네.”

라고 하였다.

(종락)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왔으나, 허생은 편안하게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 둘 바를 모르고 엉거주춤하다가 겨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려는 뜻을 설명하였다. 허생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밤은 짧은데 말이 너무 길어서 듣기에 아주 지루하구먼. 그래, 너는 지금 무슨 벼슬을 하느냐?”

“어영청 대장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바로 나라에서 신임받는 신하가 아니더냐. 내가 응당 재야에 숨어 있는 와룡 선생을 천거할 터이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 그에게 삼

고초려(三顧草廬) 할 수 있게 하겠는가?”

이 대장은 머리를 숙여 골똘히 생각하더니 한참 만에 대답했다.

“어렵겠습니다. 그다음의 것을 듣고자 합니다.”

“나는 ‘그다음’이란 말은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 대장이 그래도 굳이 묻자, 허생은 말했다.

“명나라 장군과 병사들은 조선이 예전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여겨서 그 자손들이 되놈의 나라에서 몸을 빼어 우리나라로 많이 건너왔으나, 이리저리 떠돌며 흠뻑으로 외롭게 지내고 있는 이가 많다. 네가 임금께 아뢰어 종실의 여자들을 뽑아서 두루 시집을 보내고, 훈적과 권귀들의 집을 몰수하여 그들의 살림집으로 내어 줄 수 있게 하겠느냐?”

이 대장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 있다가 대답하였다.

“그것도 어렵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한다면 대관절 무슨 일이 가능하겠느냐? 아주 쉬운 일이 있으니,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 천하에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어 결탁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법이고, 남의 나라를 정벌하려면 먼저 첩자를 쓰지 않으면 성공을 거둘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족이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었으나, 아직 중국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어 친하게 지내지 못 하는 형편이니, 이때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술선해서 복종한다면 저들에게 신뢰를 받을 것이다. 만약 당나라, 원나라 때의 예전 일처럼 우리 자제들을 청나라에 파견하여 학교에 입학하고 벼슬도 할 수 있게 하고, 장사치들의 출입도 금하지 말도록 저들에게 간청한다면, 저들도 자기네에게 친근해지고자 하는 우리를 보고 반드시 기뻐하여 이를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자제들을 엄선하여 머리를 깎아 번발을 하게 하고 오랑캐 복장을 입히고 선비들은 빈공과에 응시하고, 일반 사람들은 멀리 강남까지 장사를 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허실을 엿보고 한족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나라의 치욕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명나라 황족의 후손을 찾지 못하면, 천하의 제후들을 인솔해서 하늘에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을 천거하여, 잘만 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며, 못되어도 성씨가 다른 제후 국가 중에서는 제일 큰 나라로서의 지위는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대장이 낙심하고 허탈해서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예법을 삼가 지키고 있거늘, 누가 기꺼이 머리를 깎고 오랑캐 옷을 입으려고 하겠습니까?”

허생이 대갈일성 하며,

“도대체 사대부라는 게 뭐 하는 것들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난 주제에 자칭 사대부라고 뽐내고 앉았으니, 이렇게 어리석을 데가 있느냐? 입은 옷이란 모두 흰옷이니 이는 상복이고, 머리는 송곳처럼 뾰족하게 묶었으니 이는 남쪽 오랑캐의 방망이 상투이거늘, 무슨 놈의 예법이란 말인가?

번오기는 원한을 갚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고 내주었고, 무령왕은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오랑캐 복장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지금 명나라를 위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면서도 그까짓 상투 하나를 아까워한단 말이나. 장차 말을 달려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하는 판에 그따위 너풀거리는 소매를 바꾸지 않고서, 그걸 자기 판에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나?

내가 처음에 너에게 세 가지 계책을 일러 주었거늘, 도대체 너는 한 가지도 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서도 신임을 받는 신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고작 이런 것이냐? 이런 자는 목을 잘라야 옳을 것이니라.”

하고 좌우를 둘러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고 하였다. 이 대장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뒷문으로 뛰쳐나가 재빠르게 달아났다.

이튿날 다시 찾아갔더니 집은 이미 텅 비어 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 「허생전」

1. 윗글의 '빈 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보기>

- ㉠ 현실을 도피하는 공간이다.
- ㉡ 허생이 자신의 이상을 시험해 보는 공간이다.
- ㉢ 조선 사회의 범죄자를 구제하기 위한 공간이다.
- ㉣ 초월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에 있는 공간이다.
- ㉤ 노동의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2. '빈 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무인도이다.
- ② 늪은 뱀사공이 우연히 발견한 곳이다.
- ③ 땅이 비옥하며 풍요롭고 평화로운 곳이다.
- ④ 이상향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 ⑤ 중국의 사문과 일본의 장기도 중간쯤에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허생전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허생전의 '빈 섬'은 도둑 떼가 된 양민들에게 생업을 마련해 주어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 공간이다. '빈 섬'을 개척하는 데 있어 농사를 기본적으로 하는 농본주의에 머물러 있되, 3년 먹을 식량을 비축하고 나머지를 장기도에 가 판다는 점에서 자본주의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허생전에서는 먼저 인생의 삶을 윤택하게 한 후 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새롭게 제정하겠다는 점에서 이용후생의 실학사상이 드러나는데, 이는 성리학적 명분보다 상공업을 앞세워야 한다는 연암 박지원의 철학이 전제되어 있다. 박지원은 허생의 상행위와 이용후생의 실학사상을 통해 당대 조선 사회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 ① 허생은 빈 섬에서 이용후생을 내세우고 유교적 예법을 없애고자 했다.
- ② 허생이 빈 섬에서 어른을 공경하고 가르친 데에는 실학사상이 깊이 깔려 있다.
- ③ 도적들이 양민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민생이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④ 빈 섬의 개간 활동은 농본주의가 부국강병에 있어 단 하나의 방법임을 보여준다.
- ⑤ 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새롭게 제정한다는 점에서 백성들의 학문 수양이 부국강병에 있어 필요한 전제 조건임을 보여준다.

4. 윗글의 '빈 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상공업이 근본이 된 사회이다.
- ② 지배와 피지배층이 역전된 사회이다.
- ③ 개인을 중심으로 한 개인 중심 사회이다.
- ④ 허생이 자신의 포부를 현실적으로 실현해 보는 곳이다.
- ⑤ 척박한 환경을 허생과 도적들이 노력으로 바꾸어 낸 공간이다.

최다 빈출유형 2

허생전에 나타난 시대·사회적인 배경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허생전은 조선 후기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조선 후기에는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 부를 축적한 신흥 상공인의 등장, 신분 질서의 동요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 시기입니다. 시대·사회적인 배경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5~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허생은 목적동에 살았다. 목적동에서 곧장 남산 아래로 이르는 곳에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는 오래된 살구나무가 서 있었다. 살구나무를 향해서 사립문이 열려 있고, 몇 칸 안 되는 초가집은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 그러나 허생은 독서를 좋아하고, 그 아내가 샅바느질을 하여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다.

하루는 아내가 배가 몹시 고파서 눈물을 흘리며,

“임자는 평생 과거에 응시하지도 않으면서 책을 읽어서 무엇하려고 그러시오?”

하니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책을 읽는 것이 아직 미숙해서 그렇다오.”

“그렇다면 장인바치 일이라도 하지 그러시오?”

“장인바치 일은 본래 배우지 못했으니, 어찌하란 말인가?”

“그럼 장사가 있겠습니까?”

“장사야 본시 밀천이 드는 법인데, 어찌하란 말인가?”

그 아내가 왈칵 화를 내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밤낮으로 책을 읽더니 고작 배운 게 ‘어찌하란 말인가’라는 말뿐이오? 장인바치 일도 못 한다, 장사도 못 한다면, 어째서 도적질은 못 하는 게요?”

허생이 읽던 책을 덮고는 일어서면서,

“애석하다. 내 본래 책 읽기를 십 년을 기약했더니, 이제 칠 년 만에 그만 접어야 하다니.”

하고 문을 나서서 가 버렸다.

허생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도 없고 해서, 곧바로 변화한 운종가로 나아가 시장 사람들에게 물었다.

“한양에서 누가 가장 부자입니까?”

변 씨라고 말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허생은 드디어 그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 씨를 만나 길게 읊을 하고는,

“내가 집이 가난하여 조그마한 것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 있으니, 그대에게 돈 만 금을 빌릴까요오.”

하니 변 씨는 “그러시오.” 하고는 그 자리에서만 금을 내주었다. 허생은 끝내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 버렸다.

변 씨 집의 자제들과 와 있던 손님들이 허생의 물골을 보니, 이건 영락없는 비렁뱅이였다. 허리를 두른 실띠는 술이 빠졌고, 갓신의 뒤축은 자빠졌으며, 갓은 찌그러지고 도포는 그을려 행색이 궤궤죄죄한 데다가, 코에서는 맑은 콧물이 줄줄 흘렀다. 허생이 가고 나자 모두 대경실색하여 물었다.

“대인계선 저이를 아십니까?”

“모른다네.”

“아니, 지금 평생 알지도 못 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만 금의 돈을 함부로 던져 버리시고도 그 이름조차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이게 무슨 영문입니까?”

(중략)

한편 만 금을 빌린 허생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바로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며 거처를 마련하였다. 안성 지방이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이고, 삼남 지방의 길목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의 과일들을 모두 시세의 곱절 가격으로 모조리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사재기하는 바람에 나라 안에서는 연회를 열거나 제사를 지낼 수 없었다. 얼마 지나자 허생에게 곱절의 가격으로 팔았던 장사치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가격으로 되사 가게 되었다. 허생이 한숨을 쉬며 탄식하였다.

“겨우 만 금으로 한 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허생은 다시 칼, 호미, 베, 명주, 솜을 사 가지

고 제주도로 들어가서 그곳의 말총을 다 거두어 들었다.

“몇 해가 지나면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과연 얼마 있다가 망건값이 열 배로 치솟았다.

허생이 늙은 뱃사공을 찾아서 물었다.

“바다 밖에 사람이 살 만한 빈 섬이 있던가?”

“있습지요. 언젠가 태풍에 표류하여 곧장 서쪽으로 사흘을 가서 한밤중에 어떤 빈 섬에 닿았습니다. 따져 보니까 중국의 사문과 일본의 장기도의 중간쯤 될 겁니다. 꽃나무가 절로 피며, 과일이 절로 익어 있고, 사슴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물고기는 사람을 봐도 놀라질 않았습지요.”

허생이 크게 기뻐하며,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준다면 부귀를 함께 누리게 해 줘세.”

하니 사공이 그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 방향으로 가서 섬에 들어가게 되었다. 허생은 섬의 높은 곳에 올라서 사방을 둘러보고는 그만 실망하여 탄식하였다.

“땅이 고작 천 리가 못 되니,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땅은 기름지고 샘물은 달콤하여 그저 돈 많은 늙은이는 될 수 있겠구먼.”

그러자 사공이 물었다.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곤 없는데 도대체 누구와 함께 살아간다는 말시오?”

“덕(德)만 있다면 사람이란 절로 모이게 마련이네. 덕이 없을까 걱정해야지, 어찌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겠는가?”

그때 전라도 변산반도에는 도적 떼 수천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 지방의 고을과 군에서 군졸을 풀어서 체포하려고 했으나 잡을 수가 없었다. 도적 떼도 감히 나돌아 다니며 노략질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바야흐로 굶주림에 허덕였다. 허생이 도적의 소굴로 들어가서 괴수를 달랠다.

다음 날이 되어 바닷가에 허생이 돈 삼십만 냥을 싣고 나타나자, 모두 크게 놀라 허생에게 줄을 지어 절을 하였다.

“오직 장군의 명령대로 따르겠소이다.”

“있는 힘대로 지고 가게나.”

그러하여 도적들이 돈을 짚어졌으나, 사람마다 고작 백 금을 넘지 못했다. 허생이

“너희들 힘이란 게 고작 백 금을 들기에도 부족하거늘, 어찌 도적질이라도 번번히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너희들은 비록 평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이미 도적의 명부에 올라 있으니 어디 갈 곳도 없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터이니, 각자 백 금씩 가지고 가서 아내 한 사람과 소 한 마리씩 장만해 오너라.”

하자, 군도들이 모두 좋다고 승낙하며 흩어졌다.

그동안 허생은 이천 명이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장만하여 그들을 기다렸다. 도적들이 기한한 날짜에 모두 도착해 뒤에 처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드디어 모두 배에 싣고, 빈 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도적을 모두 쫓아 가자 나라 안에는 도적 걱정이 없어졌다.

한편 섬으로 들어간 허생과 도적들은 나무를 찍어서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었다. 땅기운이 온전하다 보니 온갖 곡식이 심는 대로 크고 무성하게 자라고, 김을 매고 쟁기질을 하지 않아도 한 줄기에 아홉 이삭이 달렸다. 삼 년 먹을 식량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로 가서 팔았다. 장기는 일본에 속한 고을로, 삼십일만 호가 되는 큰 지방인데 바야흐로 큰 기근이 들어 있었다. 그리하여 굶주린 사람들을 진휼하고 은 백만 냥을 얻게 되었다.

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야 나의 자그마한 시험을 마치게 되었구나.”

하고는 남녀 이천 명을 모두 모아 놓고 명을 내렸다.

“내가 처음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의 계획으로는 먼저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 제도를 새로이 제정하려고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 땅이 좁고 내덕이 얇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려나. 아이들이 태어나 손가락을 잡게 되면 오른손으로 잡도록 가르치고, 하루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하게 하라.”

그러고는 다른 배를 모두 불살라 버리고,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테지.”

하고 은자 오십만 냥을 바닷속에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얻는 사람이 생기겠지. 백만 냥이나 되는 돈은 나라 안에서도 놓아둘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 작은 섬에서야.”

했다. 글을 아는 사람은 모두 배에 실어서 함께 섬을 빠져나오며,

“이 섬에 화근을 없애려 함이네.”

라고 하였다. (중략)

어느 날 변 씨가 조용한 틈을 타서 어떻게 오년 만에 백만 금을 벌어들였는지 물어보았다. 허생이 대답하였다.

“그것이야 아주 알기 쉬운 일이오.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하고, 수레가 나라 안을 다니질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물품이 이 안에서 생산되고 이 안에서 소비됩니다.

(중략)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왔으나, 허생은 편안하게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 둘 바를 모르고 엉거주춤하다가 겨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려는 뜻을 설명하였다. 허생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밤은 짧은데 말이 너무 길어서 듣기에 아주 지루하구먼. 그래, 너는 지금 무슨 벼슬을 하느냐?”

“어영청 대장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바로 나라에서 신임받는 신하가 아니더냐. 내가 응당 재야에 숨어 있는 와룡 선생을 천거할 터이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 그에게 삼고초려(三顧草廬) 할 수 있게 하겠는가?”

이 대장은 머리를 숙여 골똘히 생각하더니 한참 만에 대답했다.

“어렵겠습니다. 그다음의 것을 듣고자 합니다.”

“나는 ‘그다음’이란 말은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 대장이 그래도 굳이 묻자, 허생은 말했다.

“명나라 장군과 병사들은 조선이 예전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여겨서 그 자손들이 되놈의 나라에서 몸을 빼어 우리나라로 많이 건너왔으나, 이리저리 떠돌며 흠뻑으로 외롭게 지내고 있는 이가 많다. 네가 임금께 아뢰어 종실의 여자들을 뽑아서 두루 시집을 보내고, 훈척과 권귀들의 집을 몰수하여 그들의 살림집으로 내어 줄 수 있게 하겠느냐?”

이 대장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 있다가 대답하

였다.

“그것도 어렵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한다면 대관절 무슨 일이 가능하겠느냐? 아주 쉬운 일이 있으니,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 천하에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어 결탁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법이고, 남의 나라를 정벌하려면 먼저 첩자를 쓰지 않으면 성공을 거둘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족이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었으나, 아직 중국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어 친하게 지내지 못 하는 형편이니, 이때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술선해서 복종한다면 저들에게 신뢰를 받을 것이다. 만약 당나라, 원나라 때의 예전 일처럼 우리 자제들을 청나라에 파견하여 학교에 입학하고 벼슬도 할 수 있게 하고, 장사치들의 출입도 금하지 말도록 저들에게 간청한다면, 저들도 자기네에게 친근해지고자 하는 우리를 보고 반드시 기뻐하여 이를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자제들을 엄선하여 머리를 깎아 변발을 하게 하고 오랑캐 복장을 입히고 선비들은 빈공과에 응시하고, 일반 사람들은 멀리 강남까지 장사를 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허실을 엿보고 한족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나라의 치욕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명나라 황족의 후손을 찾지 못하면, 천하의 제후들을 인솔해서 하늘에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을 천거하여, 잘만 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며, 못되어도 성씨가 다른 제후 국가 중에서는 제일 큰 나라로서의 지위는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대장이 낙심하고 허탈해서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예법을 삼가 지키고 있거늘, 누가 기꺼이 머리를 깎고 오랑캐 옷을 입으려고 하겠습니까?”

허생이 대갈일성 하며,

“도대체 사대부라는 게 뭐 하는 것들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난 주제에 자칭 사대부라고 뽐내고 앉았으니, 이렇게 어리석을 데가 있느냐? 입은 옷이란 모두 흰옷이니 이는 상복이고, 머리는 송곳처럼 뾰족하게 묶었으니 이는 남쪽 오랑캐의

방망이 상투이거늘, 무슨 놈의 예법이란 말인가?
 번오기는 원한을 갚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
 끼지 않고 내주었고, 무령왕은 자기 나라를 강하
 게 만들기 위해 오랑캐 복장을 하는 것을 부끄럽
 게 여기지 않았다.

지금 명나라를 위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면서도
 그까짓 상투 하나를 아까워한단 말이냐. 장차 말
 을 달려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하는 판에 그따위 너풀거리는 소매
 를 바꾸지 않고서, 그걸 자기 탄에 예법이라고 한
 단 말이냐?

내가 처음에 너에게 세 가지 계책을 일러 주었
 거늘, 도대체 너는 한 가지도 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서도 신임을 받는 신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고작 이런
 것이냐? 이런 자는 목을 잘라야 옳을 것이니라.”

하고 좌우를 둘러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고
 하였다. 이 대장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뒷문으로
 뛰쳐나가 재빠르게 달아났다.

이튿날 다시 찾아갔더니 집은 이미 텅 비어 있
 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당대의 사회상으로 적
 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통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나라의 경
 제 구조가 취약했다.
- ② 양민들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적이
 되어 살아가기도 했다.
- ③ 사대부들이 제사나 의관 등의 예법에 집착하
 고 허례허식에 빠졌다.
- ④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과 신흥 상인 계층이
 등장하는 등 신분 질서가 동요하였다.
- ⑤ 집권층들이 백성들을 구제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청나라의 기술을 배우고자 하였
 다.

6. <보기>를 참고하여 작품에 드러난 사회상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지금 양반이 명분상 상공업에 종사하는 것을 부
 끄러워하지만 그들의 비루한 행동은 상공업자보
 다 심한 자가 많다. 상공업은 자신의 성향을 안
 사람이 관직에 나가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물품 교역에 종사하면서 남이 아니라 자기 힘으
 로 먹고 사는 것이다. 어찌 천하거나 더러운 일이
 겠는가.

- 「우서」

조선 후기 사회는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부농층, 상업 자본가, 독립
 수공업자 등 부를 지닌 새로운 계층이 나타나 양
 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동요했다. 중앙의 정치 권
 력을 차지하고 권세를 누리는 양반도 있었지만
 다수의 양반들은 벼슬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향촌
 사회에서 위세를 유지하는 정도의 향반이 되거나
 일반 농민과 다를 바 없는 잔반으로 몰락하였다.
 이렇듯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양반이 늘고 부를
 축적하는 상민들이 출현하면서 양반 중심의 신분
 제 사회는 크게 동요하였다.

- 한국사 교과서

- ① 한양에서 제일가는 부자인 변 씨의 모습을 통
 해 당시 부를 축적한 상민들이 출현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몰락한 양반인 허생이 변 씨에게 돈을 꾸는
 모습을 통해 양반 중심의 신분제 사회가 동요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나라를 바꿀 대책을 수용하지 않는 이완 대장
 을 통해 중앙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무능
 한 지배 계층의 모습을 보여준다.
- ④ 허생이 자신을 장사꾼 취급한다며 변 씨에게
 화를 내는 장면은 당시 상공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양반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
- ⑤ 도적 떼를 구제하고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허
 생을 통해 능력이 있어도 벼슬의 기회를 얻지 못
 했던 부조리한 인재 등용의 모습을 보여준다.

7. 다음 중 이 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당시의 사회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분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 ②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 계층이 있었다.
- ③ 사대부들은 예법에 맞는 옷차림을 중시하였다.
- ④ 여성이 가정의 생계를 돌보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
- ⑤ 과일들을 볼 때 연회와 제사와 같은 허례허식의 풍속을 중시했다.

8. 위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공업이 발달되었으나 유통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경제가 침체되었다.
- ② 서민들은 최소한의 삶의 기반조차 잃어버리고 유랑민이나 도적이 되었다.
- ③ 서민 의식이 향상되면서 지배층의 무능과 허위가 비판, 풍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 ④ 허생처럼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 변 씨처럼 경제적으로 성장한 평민이나 중인이 등장하였다.
- ⑤ 이용후생의 측면에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청나라 문물의 도입을 주장한 북학론이 대두되었다.

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조선 후기 상업의 모습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보기>

- ㉠ 국가가 시장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다.
- ㉡ 조정에서 매점매석을 규제하여 상인들을 보호하였다.
- ㉢ 교통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유통 구조가 취약하였다.
- ㉣ 만 냥으로 나라의 경제가 흔들릴 만큼 작은 경제 규모였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최다 빈출유형 3

허생전의 인물들의 특성, 인물들 간의 관계, 갈등, 태도 등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편 만 금을 빌린 허생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바로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며 거처를 마련하였다. 안성 지방이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이고, 삼남 지방의 길목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굴, 유자 등의 과일들을 모두 시세의 곱절 가격으로 모조리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사재기하는 바람에 나라 안에서는 연회를 열거나 제사를 지낼 수 없었다. 얼마 지나자 허생에게 곱절의 가격으로 팔았던 장사치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가격으로 되사 가게 되었다. 허생이 한숨을 쉬며 탄식하였다.

“겨우 만 금으로 한 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허생은 다시 칼, 호미, 베, 명주, 솜을 사 가지고 제주도로 들어가서 그곳의 말총을 다 거두어 들였다.

“몇 해가 지나면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과연 얼마 있다가 망건값이 열 배로 치솟았다.

그때 전라도 변산반도에는 도적 떼 수천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 지방의 고을과 군에서 군졸을 풀어서 체포하려고 했으나 잡을 수가 없었다. 도적 떼도 감히 나돌아 다니며 노략질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바야흐로 굶주림에 허덕였다. 허생이 도적의 소굴로 들어가서 괴수를 달랬다.

다음 날이 되어 바닷가에 허생이 돈 삼십만 냥을 싣고 나타나자, 모두 크게 놀라 허생에게 줄을 지어 절을 하였다.

“오직 장군의 명령대로 따르겠소이다.”

“있는 힘대로 지고 가게나.”

그리하여 도적들이 돈을 짊어졌으나, 사람마다 고작 백 금을 넘지 못했다. 허생이

“너희들 힘이란 게 고작 백 금을 들기에도 부족하거늘, 어찌 도적질이라도 변변히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너희들은 비록 평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이미 도적의 명부에 올라 있으니 어디 갈 곳도 없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터이니, 각자 백 금씩 가지고 가서 아내 한 사람과 소 한 마리씩 장만해 오너라.”

하자, 군도들이 모두 좋다고 승낙하며 흩어졌다.

그동안 허생은 이천 명이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장만하여 그들을 기다렸다. 도적들이 기한날짜에 모두 도착해 뒤에 처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드디어 모두 배에 싣고, 빈 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도적을 모두 끌어 가자 나라 안에는 도적 걱정이 없어졌다.

한편 섬으로 들어간 허생과 도적들은 나무를 찍어서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었다. 땅기운이 온전하다 보니 온갖 곡식이 심는 대로 크고 무성하게 자라고, 김을 매고 쟁기질을 하지 않아도 한 줄기에 아홉 이삭이 달렸다. 삼 년 먹을 식량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로 가서 팔았다. 장기는 일본에 속한 고을로, 삼십일만 호가 되는 큰 지방인데 바야흐로 큰 기근이 들어 있었다. 그리하여 굶주린 사람들을 진휼하고 은 백만 냥을 얻게 되었다.

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야 나의 자그마한 시험을 마치게 되었구나.”

하고는 남녀 이천 명을 모두 모아 놓고 명을 내렸다.

“내가 처음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의 계획으로는 먼저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 제도를 새로이 제정하려고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 땅이 좁고 내덕이 얇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려나. 아이들이 태어나 손가락을 잡게 되면 오른손으로 잡도록 가르치고, 하루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하게 하라.”

그러고는 다른 배를 모두 불살라 버리고,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정답 및 해설

1. <답> ①

㉠ '빈 섬'은 허생이 가난한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도적이 된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 그들만의 세계를 만드는 곳으로, 이를 현실 도피의 공간으로 볼 수는 없다.

㉡ '빈 섬'은 허생이 자신의 이상을 시험해 본 공간으로, 농업을 기본으로 하되, 상업을 중시해 외국과 교역을 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또한 식량을 비축하고 부를 축적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였다.

㉢ 조선 사회의 '도적', 즉 삶의 기본적인 터전을 잃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도적이 되었던 도적들을 구제하기 위한 공간으로 적절하다.

㉣ '빈 섬'은 작품 속에서 '현실 세계'에 있는 공간으로 초월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에 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 '빈 섬'이 이상적 공간이므로 '빈 섬'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추측은 가능하겠지만, '빈 섬'이 노동의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2. <답> ④

'허생은 섬의 높은 곳에 올라서 사방을 둘러보고는 그만 실망하여 탄식하였다.', '땅이 고작 천 리가 못 되니,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땅은 기름지고 샘물은 달콤하여 그저 돈 많은 늙은이는 될 수 있겠구먼.'을 통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①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곤 없는데 도대체 누구와 함께 살아간다는 말이시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언젠가 태풍에 표류하여 곧장 서쪽으로 사흘을 가서 한밤중에 어떤 빈 섬에 닿았습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땅기운이 온전하다 보니 온갖 곡식이 심는 대로 크고 무성하게 자라고, 김을 매고 쟁기질을 하지 않아도 한 줄기에 아홉 이삭이 달렸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따져 보니까 중국의 사문과 일본의 장기도의

중간쯤 될 겁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3. <답> ③

도적들이 양민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가난한 백성이 도적이 되어 살아가는 삶에서 삶의 터전을 가지게 되고, 가족 공동체를 갖게 되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하루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하게 하라.'를 통해 유교의 예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허생이 빈 섬에서 어른을 공경하고 가르친 데에는 실학사상이 아닌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3년 먹을 식량을 비축하고 나머지를 장기도가 판다는 점에서 자본주의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를 통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⑤ '먼저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 제도를 새로이 제정하려고 하였느니라.'를 통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답> ④

'빈 섬'은 허생이 자신의 이상을 시험해 본 공간으로, 농업을 기본으로 하되, 상업을 중시해 외국과 교역을 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또한 식량을 비축하고 부를 축적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였다.

①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곳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지배와 피지배층이 역전된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땅기운이 온전하다 보니 온갖 곡식이 심는 대로 크고 무성하게 자라고, 김을 매고 쟁기질을 하지 않아도 한 줄기에 아홉 이삭이 달렸다.'를 통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답> ⑤

'지금 명나라를 위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면서도 그까짓 상투 하나를 아까워한단 말이나. 장차 말을 달려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하는 판에 그따위 너풀거리는 소매

를 바꾸지 않고서, 그걸 자기 탓에 예법이라고 한 단 말이냐?’를 통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① ‘겨우 만 금으로 한 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아니, 밭 있고 아내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적이 된단 말이오?’를 통해 당시 가난한 백성들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적이 되어 살아갔음을 알 수 있다.

③ ‘거기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굴, 유자 등의 과일들을 모두 시세의 곱절 가격으로 모조리 사들였다.’, ‘제주도로 들어가서 그곳의 말총을 다 거두어들였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양반들이 제사 때 쓰는 과일이나, 의복에 착용하던 말총을 사재기하여 나라를 휘청거리게 만든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인 허생과 신흥 상인 계층의 변 씨를 통해 신분 질서가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6. <답> ⑤

도적 떼를 구제하고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허생의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모습을 통해 신분 제도를 비판한다고 할 수 없다.

① 변 씨는 당시 부를 축적한 상민이었으므로 적절하다. 변 씨는 조선 후기 새롭게 성장한 신흥 상인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상민보다 신분이 높은 양반인 허생이 변 씨에게 돈을 꾸는 모습을 통해 조선 후기의 양반 중심의 신분제 사회가 동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허생이 제안한 계책을 듣고도 사대부의 명분을 내세우며 거절하는 이완 대장을 통해 무능한 지배 계층의 모습을 알 수 있다.

④ 허생은 상업을 통해 큰돈을 벌면서도 자신을 장사꾼 취급하는 변 씨에게 화를 낸다. 이를 통해 당시 상공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양반의 부정적 인식을 알 수 있다.

7. <답> ④

허생의 아내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책만 보는 허생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통해 적절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① 상민보다 신분이 높은 양반인 허생이 변 씨에게 돈을 꾸는 모습을 통해 조선 후기의 양반 중심의 신분제 사회가 동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 계층인 허생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굴, 유자 등의 과일들을 모두 시세의 곱절 가격으로 모조리 사들였다.’, ‘제주도로 들어가서 그곳의 말총을 다 거두어들였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양반들이 제사 때 쓰는 과일이나, 의복에 착용하던 말총을 사재기하여 나라를 휘청거리게 만든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8. <답> ①

당시 조선은 상공업이 장려되지 않고 유통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경제가 침체되었다.

② ‘아니, 밭 있고 아내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적이 된단 말이오?’를 통해 당시 가난한 백성들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적이 되어 살아갔음을 알 수 있다.

③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가 동요되고 서민 의식이 향상되면서 지배층의 무능과 허위가 비판, 풍자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④ 허생처럼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 변 씨처럼 경제적으로 성장한 평민이나 중인이 등장한 조선 후기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작가는 허생이라는 인물을 통해 나라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청나라 문물의 도입을 주장한 북학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9. <답> ④

㉠ 국가가 시장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 조정에서 매점매석을 규제하는 모습은 뒷글에 드러나 있지 않다.

㉢ ‘그것이야 아주 알기 쉬운 일이오.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하고, 수레가 나라 안을 다니질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물품이 이 안에서 생산되고 이 안에서 소비됩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겨우 만 금으로 한 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

니, 나라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10. <답> ①

'사대부들이 모두 예법을 삼가 지키고 있거늘, 누가 기꺼이 머리를 깎고 오랑캐 옷을 입으려고 하겠습니까?'를 통해 이 대장은 명분을 중시하고, '번오기는 원한을 갚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고 내주었고, 무령왕은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오랑캐 복장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를 통해 허생은 실리를 중시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② 허생은 시사 삼책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 더욱 힘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허생이 이 대장을 얕잡아 보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허생이 의도적으로 불가능한 계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다만 사대부의 명분을 중시하는 이 대장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계책이었다.

⑤ 이 대장은 허생의 계책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대부의 명분을 내세우며 거절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1. <답> ④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가 생기기 바란다는 의미로, 이 대장은 허생이 제시한 계책을 아무것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조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어떤 일을 할 때 확실하게 확인하고 행동함을 이르는 말.

② 형편이 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여 지난날의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낸다는 말.

③ 당장의 마땅찮은 것을 없앨 마음만 앞서 그것이 초래할 위험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데서 생긴 말.

⑤ 한 사람의 못된 행동이 그 집단 전체나 여러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말.

12. <답> ③

㉠에서는 청나라와의 교류를 촉구하는 허생의 모

습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용주의적인 가치관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허생이 위정자들의 실리 추구를 비판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호연지기란 세상에 꺼릴 것이 없는 크고 넓은 도덕적 용기를 뜻하는 말로, 해당 부분에서는 허생이 이 대장의 이러한 부분을 간접적으로 칭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허생이 벼슬이나 문벌이 높은 집안과 사귀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허생은 상업을 중시한 이용후생학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3. <답> ③

허생은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 청과 무역을 하며 다른 나라와 교역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도대체 사대부라는 게 뭐 하는 것들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난 주제에 자칭 사대부라고 뽐내고 앉았으니, 이렇게 어리석을 데가 있느냐?'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지금 명나라를 위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면서도 그까짓 상투 하나를 아까워한단 말이나.'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일반 사람들은 멀리 강남까지 장사를 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허실을 엿보고 한쪽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나라의 치욕도 씻을 수 있을 것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번오기는 원한을 갚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고 내주었고, 무령왕은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오랑캐 복장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

14. <답> ⑤

'장사야 본시 밀천이 드는 법인데, 어찌하란 말인가?'를 통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① '그 아내가 샅바느질을 하여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내 본래 책 읽기를 십 년을 기약했더니, 이제 칠 년 만에 그만 접어야 하다니.'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변 씨라고 말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허생은 드디어 그 집을 찾아갔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임자는 평생 과거에 응시하지도 않으면서 책을 읽어서 무엇하려고 그러시오?'를 통해 알 수 있다.

15. <답> ①

'나 역시 손님에게 시험해 보려는 것이 있네.'를 통해 변 씨는 허생이 자신에게 빌린 돈으로 무엇을 할지 궁금하였으며 이를 시험해 보기 위해 돈을 빌려 주었음을 알 수 있다.

② 허생의 당당하고 오만한 태도에 경외감을 느끼지는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변 씨는 허생이 자신에게 빌린 돈으로 무엇을 할지 궁금하여 시험하기 위해 빌려주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허생이 재물에 욕심이 없는 사람임을 판단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허생이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인물임을 변 씨가 알아채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 <답> ④

'당신은 어쩌서 나를 장사꾼으로 취급하려는 게요?'를 통해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장사치'에 대해 허생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① 변 돈으로 사대부들을 위해 기부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새로운 문자를 만든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나라를 어지럽히는 도적들을 빈 섬에 데려가 양민이 되도록 도왔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7. <답> ②

허생은 아무리 가난하여도 양반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해엄은 안 한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반면 허생의 아내는 양반이라는 신분보다 당장의 생계를 더 걱정하는 인물로 '목구멍이 포도청이

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①	가난한 집에서는 산 사람도 배를 굶는 형편이라 신주까지도 제사 음식을 받아 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어쩔 수 없이 줄곧 굶기만 함을 이르는 말.	말은 누구에게나 점잖고 부드럽게 하여야 한다는 말
③	형편이 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여 지난날의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낸다는 말.	가 불려야 체면도 차릴 수 있다는 뜻으로, 먹는 것이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라도 배가 부르고 난 뒤에야 흥이 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헤프게 쓰지 않고 아끼는 사람이 재산을 모으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아무리 좋은 조건이 마련되었거나 손쉬운 일이라도 힘을 들이어서 이용하거나 하지 아니하면 안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8. <답> ④

북벌론이 아닌 허생이 제안한 계책들이 급진적인 것으로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보통의 고전 소설은 주인공들이 업적을 달성하거나 결혼을 하는 등 행복한 결말 구조로 끝나지만 윗글에서는 열린 결말로 끝이 난다.

② 허생의 간 곳이 없었다는 표현을 통해 허생의 이인(異人)다운 풍모가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③ 열린 결말을 통해 암시와 여운을 남겨 독자에게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있으므로 적절하다.